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인: 오승수 시몬 주임신부 | 편집: 소공동체지 편집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성령 강림 대축일 (2023년 5월 28일)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 22)



성령강림 | 그림 심순화 카타리나 (출처: 수원주보, 2020.5.31)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1. 시작 기도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144장 '주의 일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144

주의 일이

성령

김대봉



1. 주의일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며
 2. 성령이여 우리영혼 비취주시며
 3. 위로자며 사랑이신 성령이시여



만물을 활기에 차게 하며
 만물 사랑을 넘치게 베푸소서
 믿는 이 마음에 내려오사



하느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네
 하늘나라 은혜로 채워주소서
 하느님의 성전이 되게주소서



알 - - 렐 루 - - 야 알렐루 - - 야

-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아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로마 10,8)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주교회의 성경위원회)

2.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 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 말씀

- 한 분이 코린토 1서 12장 3절에서 7절과 12절에서 13까지의 말씀과 요한 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1코린 12, 3c-7.12-13)

형제 여러분, 3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4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5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6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7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12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13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요한 20, 19-23)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30초)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단어 하나 / 최대 문장 하나)을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4.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5. 실천 사항 (우리 반의 실천 사항을 함께 정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족 사이에 있었던 응어리 하나 풀기
- 성모성월을 맞아 하루에 묵주기도 한 단 바치기
- “공동선을 위하여” 친교실의 쓰레기 정리와 재활용 분리수거하기



6. 전 모임 기록 낭독 및 출석 확인

- 지난번 반 회의록 낭독 및 출석 사항을 확인합니다.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 게스트가 있는 경우에 소개합니다.

7.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8. 본당 성서 공부 질문 사항

-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중에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성서 공부를 본당 홈페이지 링크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ible-study_/에서 녹음 파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빈장님이나 질문 링크 <https://forms.gle/EUIYKfnTfgku49fF7>를 통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성경을 읽으며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서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성서는 참 어렵고 부가적인 설명이나 배경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서의 작성은, 작성이 성령의 힘으로 작성이 되었을 터인데, 그 당시 내용 전달은 하시되 어렵게 그리고 설명이 없이는 전달 못하게 하셨나... 무지한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같이 읽고 서로 배우고 나누라고 하셨나...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성서 작성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바로 사는 길을 교훈하기 위해서라고 나오지만, 혼자서는 안되고 반드시 누가 설명을 해줘야 하는 그런 것이어야만 했는지 등 이런저런 궁금증이 자주 생겼었습니다.

A 성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아주 오래전에 성경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문학 안에서의 고전을 읽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접하고 보면 몇 장 못 읽고 덮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전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사는 시대와 동떨어진 시대를 배경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므로 그 시대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는 그 고전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가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성서가 형성될 당시의 시대 배경이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당연히 많이 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성서의 저자가 어렵게 썼다기보다는 시대와 장소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알기 위해서는 성서의 '삶의 자리'에 관한 공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서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고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서가 어려운 이유는 두 번째로 그 안에 담긴 신학의 역동성 때문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나의 책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의 책에 담긴 신학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구약은 유일신 사상의 신학을 신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약의 이야기 여기저기에서 다신적인 요소가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분명 이런 신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가서는 또 다른 신학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 일관성 없어 보이는 성서의 전개 때문에 성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 편집의 특징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성서는 덮어쓰기 형식의 편집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어쓰기 형식의 편집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야기를 아예 다른 이야기로 각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존재하면 다른 이야기를 이어서 쓰는 형식을 자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과 뒤가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한 편집 방식 덕분에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해주면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의 역동성은 긴 시간 동안의 편집에서도 오게 됩니다. 신학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마련인데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에 대한 신학도 변하게 되고 그 변화가 시간의 논리에 맞추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에 맞추어서 편집되다 보니 성서에서의 신학이 중구난방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중구난방으로 보이는 신학이지만 성서 저자의 철저한 의도에 따라서 그러한 신학이 배치되어 있음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오히려 감탄하게 되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아직 성서를 왜 만들었는지에 답은 없었다고 봅니다. 성서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했고요. 성서를 만들겠다고 결정적으로 편집을 한 것은 구약의 시간으로 볼 때 바빌론 유배 중과 그 이후로 보면 맞습니다. 바빌론 유배는 유대인들의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인간이 지극한 고통이 찾아오면 자기 신앙에 대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든 아니며 자신의 신앙을 버리든. 사실 중간은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은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더욱 치열하게 하느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 애를 쓴 결과물이 바로 성경이 됩니다. 그 전후의 과정은 사실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성서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작업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온전히 찾게 된 겁니다. 그 찾아감의 여정에서 구약은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구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철저하게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깨닫고 알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Q 다음 질문은 탈출기 4장 3절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뱀', '독사'는 어떤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좋지 않은 인식이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마태오 복음서 10장 16절에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이 부분은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바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해석이나 의도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A 고대 근동에서 뱀은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을 악의 대명사로 여기는 부분도 있고 뱀을 슬기로운 존재로 여겨서 심지어는 신성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관을 잘 보면 그 왕관에 코브라의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단지 악하고 더러운 존재로 여긴다면 그렇게 파라오의 관에까지 뱀을 새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에덴동산 이야기에서 뱀은 악하고 간사한 존재, 심지어는 악마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민수기를 보면 하느님이 보낸 불 뱀들에게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갈 때 구리 뱀을 만들어서 세우게 되고 사람

함께하는 소공동체

들이 그것을 보고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뱀에 대한 신앙은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에게서 받은 영향이 됩니다. 어떤 민족은 뱀을 부정하게 보는 반면 어떤 민족은 뱀을 신으로 여기기까지 했고 그러한 모습들이 구약에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성서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고 그러한 이교적인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게 되는 신학이 교회 안에서 발전하게 되면서 뱀에 대한 그러한 이교적인 모습을 철저하게 배제하게 되면서 뱀의 모습이 악마와 동일시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전통은 그러한 배타적인 신학에 나름의 활력소를 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뱀도 하느님의 피조물인데 그 자체로 나쁘거나 악할 수는 없겠죠. 심지어 모기도요.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네방네 메아리

- 순박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즐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AA2,3)
- 직접 보거나 느끼지 못한 것을 믿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의심을 버리고 믿기 위해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BL1, CT, NV1, RC1, RC3)
-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용서를 실천해 봅시다. (BL1, TR2)
-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타인을 용서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간직하고자 노력해 봅시다. (CT)
- 하느님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간구합니다. (CT)
- 온전한 빵을 잘게 떼어 나누는 것처럼,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떼어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NV1)
-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선순환의 삶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NV1)
- 힘든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마음을 또 다른 부활이라고 묵상해 보며, 모두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RC3)
- 본당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의 좋은 점을 본받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TR2, RC3)
- 한 달 동안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RC4)

10.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생활성가 셀라 213번 '성령송가' 1절
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성령송가

213

김효정



오 소서 성령이여 당 신의 빛 - 그 빛 살을 내리소서



가 난 한 이 아 버 지 주 님 오 시 어 마 음 에 빛 을 주 소 서



1.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돌워	주 소 서
2.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 그 모든 것	이러운 것	없 으 리
3. 성령님을 믿으며	바라는 저희에게	찰은 음베	푸 소 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에	위 - 로 를
허물은 씻어 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고	치 - 소 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	영복을 얻	게 하 소 서



지복의 빛이시여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 채 우 소 서	- 성 령 이 여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 이 끄 소 서	- 성 령 이 여
오소서	성령이여	저희 마음을 - 채 우 소 서	- 성 령 이 여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봉헌기도는 내 삶의 방향

이종덕 아타나시오

제가 처음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27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라는 기도 책을 접한 때부터였습니다. 이 책은 인류 구원과 삶의 진리인 우리의 미션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저의 신앙은 연옥으로 가더라도 지옥만 안 가면 된다는 속셈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온 마리 스텔라 수녀님의 특별 초청 봉헌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정식으로 깊은 묵상을 하며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루 세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때부터 매일 미사 참례를 하며 영성체 모시기를 시작했고 자주 고백 성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왜 매일 아침이면 성당에 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발걸음, 신앙의 신비가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성모 신심 단체 신자들에게 메주고리에 성지 순례가 열풍처럼 퍼져갔습니다. 혹시 가톨릭 신자들을 이용해 돈을 벌 목적으로 거짓 시나리오를 꾸민 것이 아닌지 실체를 파헤쳐 보고 싶다는 기자 정신이 발동했습니다. 3주간의 성지 순례 동안 허구를 들쳐내기는커녕 오히려 성모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모상의 손에 저의 손을 얹고 “죄 많은 저를 무엇이 좋으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성모님.” 마음으로 나오는 말을 성모님께 전달하자마자 성모님의 응답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너의 죄를 모른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저의 심적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비 자체였습니다. 한편에선 몸 둘 바를 모르겠고 한편으론 ‘내가 정말 성모님의 음성을 체험한 것인가? 아님 헛소리 환청을 들은 것인가?’ 그 현상은 분명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들은 말씀이라 어떤 오감으로 어떻게 받은 말씀인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곰곰이 묵상하였습니다. 모 수도원장 레이몬드 신부님께 이 현상에 대해 여쭙어보니 “성모님은 하느님의 생각과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거일동 모두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죄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사를 통해 죄에 대한 기록을 지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시간 디트로이트로 이사 온 후 경제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앞이 캄캄했고 죽어버리고 싶어도 부인과 어린 딸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나, 절망 속에 흐느끼고 있는 나를 봉헌 기도 책이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모든 일이 원만하고 풍족하게 될 때 좋아함과 같이 궁하고 가난하게 될 때도 좋아할 것이다.” “좋거나 싫거나, 달거나 쓰거나, 즐겁거나 슬픈 모든 것을 가림 없이 다 당신 손에서 받고자 하오며 제가 당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가? 난 쓰거나 슬픈 것 그리고 가난한 것은 왜 아직도 감당해 내지 못하나? 지금까지 쌓아 놓은 나의 신앙심은 고작 이것이었나? 그동안 해왔던 봉헌은 무엇이었나? 초라한 내면의 모습이 보이자 다시 살찌우고 아름다운 나를 보여 달라는 기도를 드렸더니, 어느새 저는 새로운 나, 즉 ‘주님의 나’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의 찢어지는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우리 생의 마지막 것들과 주님 십자가 처형당하심입니다. 제 나이 61이 넘어가자 마음속 한구석에 공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얼마나 더 살 것인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80이라면 이제 2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허전하고 만족하지 않다니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살아있기 때문이다.” 곧 죽어야 할 것들을 죽이지 못함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제가 죽어 있다면 배고플 일이 없고, 슬플 때, 제가 죽어 있으면 슬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가 미워질 때 제가 죽어 있으면 미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내적 죽음의 삶’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왜 잊고 살았는가? ‘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죽여 없애 버리겠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인류의 평화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에덴동산에서 내쫓김당한 그때부터 “주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인간이 주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어야 했건만 변명만 늘어놓은 못난 우리의 원조. 주님은 우리 인간들과의 화해를 위해 자진해서 세상에 오셨고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류와 주님과의 화해가 이뤄졌다면 가정사, 공동체 그 외 어느 곳에서도 ‘내적 죽음’이 일어나야만 걸림돌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고, 죽어야 진정한 부활을 맞이하며, 주님의 성체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를 지워버리는 열쇠는 마리아가 갖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통틀어 원죄없이 살다 가신 분은 마리아 한 분뿐이시고 뱀의 꼬임에 속아 주님의 명을 거역한 하와의 실수를 마리아는 반복하지 않은 완벽한 주님의 종이십니다.

지금 바로 새 아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새 하와 성모 마리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옛 아담과 옛 하와의 원죄를 깨끗이 정화하는 날, 그날이 우리의 에덴동산을 되찾는 날입니다.

27년 전 저에게 건네진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기도책은 그리스도의 생애 33년을 33일로 축약해서, 33일동안 주님의 삶을 배워가며 구원받는 삶을 찾는 훌륭한 지침이 되어주었습니다.